



순천시, 2017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대중교통 시설확충·서비스 제공 등 높은 평가



순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전국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최근 선정됐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간 우수한 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도입한 평가이다. 총 4개 부분 19개 지표, 56개 항목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시민만족도 조사, 대중교통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중교통 환경을 평가했으며, 순천시는 대중교통 시설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주유시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2007년 평가가 도입된 이래 지난 2015년에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1위로 3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순천시는 주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신도심 지역 버스노선 조정, 농촌지역 미중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시설개선,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태양광 조명등, 버스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개선했다.

황태주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등 500억원 확보

외부 용역없이 지역주민 직접 사업계획 수립 높은 평가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중심시가지지형(장천,남제동 일원)과 일반근린형(저전동 일원) 2곳이 동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정부 핵심 공약 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10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현장평가를 거쳐,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뉴딜사업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전남도 최초

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통해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장천,남제,저전동 일원을 확정하고, 6월 주민주도 집중검토회의, 7월 도시재생 주민대학, 8월에는 2단계 주민협의체를 출범했다.

9월 컨트리퍼케이션 상생협약 체결 등 전문 용역사가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구상서를 작성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2곳이 동시에 선정되는 국내 유일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뉴딜사업 선정으로 순천시는 중심시가지지형(장천동, 남제동 일원)사업으로 정원 및 반려산영

육성을 통한 도심기능회복을 위해 30억원, 일반근린형(저전동 일원) 사업으로 골목상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0억원 등 5년간 국비 포함 총 500억원의 사업비 투입한다.

2018년초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주도하에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1단계 지역인 향동, 중앙동의 재생 사업과의 연계 및 확산전략을 통해 원도심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4년 국토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향동, 중앙동 일원이 선정됐다.

순천=김종영 기자

전남기술과학고~만연저수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탐방객에 교통편의 제공

전남기술과학고~만연저수지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돼 동구리 호수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교통편의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기술과학고~만연저수지 구간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2016년도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 편입토지 31필지를 대상으로 11월까지 보상을 한데 이어 최근엔 계약심사를 완료했다.

도시계획도로 2.3호선 전남기술과학고~만연저수지 구간은 총 연장 570m, 폭은 15m(보도포함)로, 12월에 착공해 내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군은 매년 25만여 명이 동구리 호

수공원을 찾는 등 많은 탐방객이 호수공원을 찾고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2차선으로 협소하고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잦았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봄철과 축제 때는 탐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20억원 등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영산포권 역전 마을' 도시재생공모 선정

나주시가 2017년 국토교통부 시행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영산포권 '도란도란'만 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 100억 선정'에 이은 도시재생분야 굵직한 쾌거를 연이어 달성하며, 원도심 활성화정책에 날개를 달게 됐다.

급변 사업 선정에 힘입어 나주시는 영산포권 일원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향후 3년 간 구)영산포 역전마을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며 도시재생분야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주민공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광양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들어선다

광양무인항공교육원 지정 받아 전문적 교육 받을 수 있어

광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지정된 드론 전문교육기관이 들어선다.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속발전 가능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드론 전문교육기관 유치에 나선 결과 지난 1일자로 광양무인항공교육원이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산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조사와 배송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이 드론조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교육기관을 방문해 필수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드론 전문교육기관 유치로 드론 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드론교육을 받기 위해 외지에서 광양시를 방문하는 교육생들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드론 실기 비평장은 광양시 다목적 센터 1층에 있으며, 드론조종면허 취득을 하려면 학과교육(이론) 20시간과 실기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김형찬 교통과장은 "드론산업이 초기에는 동호회나 취미활동 위주로 형성되었으나 현재 기업, 대학 등에서 기반과 연계산업, 드론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 중에 있다"며, "우리 지역에 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봉강면 쌈채소 특화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높여가

내재해영 광복하우스 3동 조성·기술지도 강화 추진



광양시가 봉강면 백운저수지를 중심으로 상추와 케일, 비트, 당귀, 치커리 등 20여 가지의 쌈채소를 생산하는 재배단지를 조성해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겨울철 쌈채소 재배에 앞서 올해 국비를 포함한 총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봉강면 용보뜰에 내재해영 광복하우스 3동

4,300㎡를 조성했다.

쌈채소 재배단지가 있는 봉강면 삼봉마을에는 6년 전 봉강면으로 귀농한 최성영씨 부부가 시설하우스 3동에서 신선 쌈채소를 재배해 꾸러미 사업을 통한 높은 소득을 올려왔었다.

그러나 현 재배 규모로는 소비자의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

쉬움이 있자 삼봉마을 주민 20여 명이 발 벗고 나서 2015년도에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마을 소득사업으로 본격 추진해 오고 있다.

영농법인에 참여한 최성영씨는 마을 주민 모두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동안의 쌈채소 시설재배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 있다.

쌈채소 재배농가 최성영씨는 "쌈채소 시설재배로 기후 조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가 적게 들어 경영의 이점과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며, "어르신 등 지역 주민으로 대부분의 작업이 가능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매실원예과장은 "봉강면 쌈채소 재배단지가 웰빙시대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젠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